

보도분류	브리핑( ) 보도자료 제공( ✓ )
보도일시	<b>2022. 6. 21(화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작성과	송도기반과/영종청라기반과
담당	송도기반과장 조항만, 교통시설팀장 장병윤, 담당 조석훈(032-453-7503)
	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, 스마트도로팀장 성정은, 담당 문준형(032-453-7773)

## 인천경제청, ‘스마트 횡단보도’ 설치 본격 추진

송도·영종·청라 주요 교차로 등 17곳…바닥신호등·보행신호 음성안내 등 8월 설치

- 송도·영종·청라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안전한 횡단보도 보행을 돕는 ‘스마트 횡단보도’ 설치 사업이 추진된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인천 지역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협업,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횡단보도 주변 교통약자의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필요한 IFEZ 내 주요 교차로 17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오는 8월 중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.
- 스마트 횡단보도는 최신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해 횡단보도 보행자들의 안전을 돕는 교통안전 관련 보조장치를 말한다.
- 기존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외에 △횡단보도 바닥에 설치돼 점등되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, △보행자 위치에 알맞은 상황별 음성안내를 지원해 사고를 예방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시스템, △신호등에서 숫자와 도형으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잔여표시기, △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

5~10초 보행 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등이다. 이들 장치들이 특성에 맞춰 각각 설치되는 곳은 주요 교차로, 어린이 보호구역,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다발 지점 등이다.

- 구체적으로 송도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밀집구역인 △미송초교 네거리 △현송초교 삼거리 △연송초교 북측(단일로) △연송초교 남측(단일로) △자이하버뷰 13입구 네거리 △해송초교 삼거리 △송일초교 네거리 △컨벤시아 네거리 등 8곳에 바닥신호등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등이 설치된다.
- 또 영종은 보행자가 많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 영종하늘도시 교차로 4곳에 바닥신호등 등이, 청라의 경우 △청라중 입구 네거리 △청라초교 남측(단일로) △해원초교 네거리 △청람초교 네거리 △경연초중교 네거리 등 5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 등이 각각 설치된다.
- 인천경제청은 이번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 추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요 사고다발 교차로 등에서 보행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등 횡단보도 보행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성용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차장은 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에 노력, IFEZ가 스마트 도로교통 기반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